



### 1. 머리말

이란·이라크戰爭은當初兩國 다같이 軍事施設에 대한 限定된 攻擊이었지만 그後 이란의 아바단 製油所, 이라크의 바스라製油所와 兩國 最大의 石油經濟施設이 爆擊되어 壞滅狀態가 되었고 또한 兩國의 石油積出港 및 關聯施設도 被害를 받게되어 世界의 石油需給價格에 미치는 影響이 憂慮되기 시작했다.

1981년의 世界石油需給 價格의 動向은

- 이란·이라크 戰爭擴大의 可能性과 繼續期間
- 兩國의 石油關聯施設의 被害狀況과 復旧期間
- 이란·이라크를 除外한 OPEC諸國이 어느정도 增産 가능한지

등의 要因에 크게 左右될 것이다. 즉 올해의 石油事情은 中東情勢 특히 이란·이라크戰爭의 行方이 最大의 關鍵임에 틀림없다. 여기에서 올해의 石油需給·價格을 展望하는데 있어 이번 戰爭의 背景 및 經緯에 대해 概觀하여 볼 必要가 있다.

### 2. 이란·이라크 戰爭의 背景 및 經緯

#### 2-1 對立의 背景

이란·이라크戰爭의 뿌리 깊은 對立의 構圖은 우선 第1로 페르샤인 대 아랍인 이라는, 民族이 다르다는 점에 있다.

아랍民族은 이스람의 擴大와 더불어 改宗하여 아

〈표-1〉 이란·이라크 國境紛爭의 經緯

1913年	이란·이라크의 國境은 오스만터어키와 페르샤, 러시아, 영국의 4個國에 의한 콘스탄노플 約定에서 確定.
1937年	이란·이라크, 영국의 調停으로 샤도·알·아랍川의 國境確定協定을 締結
1969年	이란, 샤도·알·아랍協定을 破棄
1970年	국경紛爭發生
1975年 3月	이란·이라크, 알제리아의 仲介로 샤도·알·아랍川의 中間點을 國境으로 定한 新國境協定(알제리協定)에 調印
1979年 6月	이란의 후세탄州的 아랍인의 反政府活動에 대해 이라크가 武器援助하고 있다고 이란이 非難, 이란·이라크관계 또다시 惡化
1979年 9月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있는 이라크 大使館과 콤市, 호람샤市에 있는 이라크 領事館이 이슬람교 各派學生에 의해 襲擊. 이란·이라크 관계는 急激히 惡化
1980年 3月	이란, 駐이라크 大使를 本國召還, 이라크의 駐이란 大使를 追放
4月	아지즈·이라크 副首相 暗殺未遂事件 후세인 이라크 大統領, 페르샤만의 3島의 返還, 샤도·알·아랍川의 일부지역의 返還을 이란에 要求, 이란·이라크 兩軍 國境附近에서 게릴라活動 活發化
9月	이란·이라크 陸海空 3軍의 全面戰爭으로 突入

# 어떻게 될까?

## 에의 函數關係

랍어를 받아 드렸던 사람들인데 페르샤인은 獨特한 文化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地名을 부를 때 아랍만(灣)을 이란에서는 페르샤만, 또 샤도·알·아랍川을 이란은 알반루우드川이라고 부르고 있다. 더우기 아랍世界에는 아랍聯盟이나 아랍石油輸出機構(OPEC)가 있으며 여기에서도 이란과 그 뜻을 달리하고 있다.

둘째는 宗派問題이다.

1979年 2月 팔레비 王制의 崩壞는 灣岸 諸國을 이란의 軍事壓力에서 解放시켰지만 대신 登場한 호메이니 政權은 시아파 革命을 輸出하여 또다시 灣岸 諸國을 威協하기 시작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灣岸의 王制 諸國은 다같이 이슬람교 多數派의 스톨니派가 實權을 掌握하고 國內에서 시아派가 被壓迫者로 反政府活動을 하고 있다. 아랍 諸國 內의 反政府活動에 대해 호메이니는 스톨니派 獨裁體制를 打破하고 시아派의 自治要求運動을 展開하도록 작용하였다. 이에 對抗하여 이란의 후세인 大統領은 1979年 여름 이후, 시아派 閣僚의 追放, 시아派 教徒의 公職追放 등 強硬策을 취함으로써 반이란 感情을 高潮시킬 수 밖에 없었다.

세째는 少數民族問題를 들 수 있다.

이란·이락의 國境地帶에는 이란 革命후 구루디스탄地方의 굴드族, 후제스탄州의 아랍族이 自治權 確大 혹은 獨立을 이란政府에 대해 要求하여 왔다. 이것을 이란측은 굴드族, 아랍族의 背後에서 이락이 武器供與 등 援助를 하고 있다고 강력히 非難하였다.

이란·이락 戰爭의 背景에는 民族이 다르다는 點

外에 宗派問題, 少數民族 問題가 얼킨 複雜한 對立關係가 있기 때문이다.

### 2-2 國境紛爭의 經緯

이란·이락은 1975年 3月에 알제리에서 開催된 OPEC首腦會議에서 알제리아의 仲介로 샤도·알·아랍川의 中間點을 國境으로 定하는 新·國境協定(알제리協定)에 調印하였다. 이 協定에 따라 1937年에 샤도·알·아랍川의 東岸으로 定하여져 있던 國境線에서부터 이락은 大幅 讓步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란革命後의 1979年 여름경부터 國境紛爭은 頻發하였고 1980年 3月에 이락領內의 가슬·에·시린의 國境檢問所를 攻擊하고 4月에도 兩國軍의 武力衝突이 繼續되고 9月의 全面戰爭으로 突入하였던 것이다. (표-1, 參照)

## 3. 이란·이락 戰爭과

### 世界石油 需給의 動向

#### 3-1 世界石油需給에 影響을 준 基本的 要因

##### (1) 戰爭擴大의 可能性과 繼續期間

이란·이락 戰爭은 3個月余를 經過하여 지금도 이란側은 反攻·持久戰의 態勢를 무너뜨리지 않고 있다.

膠着된 戰線이 世界를 石油不安으로 몰아 넣을만큼의 本格的 戰爭에로의 擴大可能性으로서는 이란에 의한 호르무즈海峽, 封鎖, 혹은 아랍 諸國이 이락을 直接的으로 援助하는 경우가 생각된다.

그러나 前者는 이란의 海軍力이 약화되었다는 점에서 軍事的으로도 어려운 情勢에 있다. 더우기 後者の 경우는 아랍 諸國中에 요르단이 이락支持를 표명하고 있을뿐 正面으로 이락을 支持하는 나라는 없다. 지금까지는 戰線을 限定하는 힘이 강하게 作用되고 있다.

戰爭擴大를 抑制하는 要因으로서는 이란·이락이 現 保有의 軍事力으로서 戰線을 擴大하는데는 限界가 있는점, 美·蘇 兩大國이 直接的 軍事介入이 어려운 점, UN 아랍 諸國의 調停活動이 活發化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은 점을 根據로 한다면 今후 이란·이락戰爭은 擴大될 可能性이 거의 없고 문제는 오히려 戰爭의 繼續期間이다.

표-2 이란·이라크의 調停條件

이 란	이 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라크군이 1975년의 알제리協定에서 決定한 國境線까지 되돌아가 戰鬥을 停止한다.</li> <li>• 조정국은 이라크의 侵略性을 認定한다.</li> <li>• 이라크는 이란 反革命勢力에의 活動基地提供, 破壞活動의 支援을 中止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이라크의 領土, 水面의 主權尊重</li> <li>• 이라크 및 기타의 아랍諸國과의 善隣條約締結</li> <li>• 이라크에 대한 內政不干渉의 保障</li> <li>• 모든 侵略行爲의 停止</li> <li>• 샤드·알·아랍川의 이라크歸屬</li> <li>• 호르므즈海峽에 있는 아부무우사, 大튼부, 小튼부 3島(섬)의 아랍歸屬</li> </ul>

그런데 兩國의 停戰條件에는 많은 間隔이 있고 (표-2 參照) 또 이 戰爭이 떠나사들 大統領, 훗세인 大統領의 政治生命이 걸려 있는만큼 쉽게 停戰에로의 進歩는 어려운 情勢이다.

현 段階에서는 調停工作이 奏效되지 못하고 兩國에 큰 影響을 주는 나라도 발견되지 못하는 점, 더우기 短期的으로 戰爭終結에 到達하려면 어느쪽인가가 壓倒的 優位에 서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現保有 軍事力에 의한 小規模 紛爭이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있을것으로 展望된다.

(2) 兩國의 石油關聯施設의 被害狀況과 復旧期間

이란·이라크 戰爭이 이란 南部의 油田地帶에 限定되어 가고 있는 현재 石油關聯施設의 復旧는 어느 정도의 時間이 걸릴것인지의 關心이 보여지고 있다.

양국의 石油關聯施設의 被害狀況을 보면 (표-3 參照), 이란의 아바단 製油所, 이라크의 바스라 製油

所 다 같이 兩國을 代表하는 石油施設이 重大한 損害를 입고 現在 閉鎖中에 있다.

損害의 規模로 보면 이란의 製油能力 100만배럴 / 일 중 아바단 製油所에서 단 60만배럴 / 일의 製油能力이 있어 被害는 매우 크다. 이라크의 製油能力은 이란의 약  $\frac{1}{5}$ 의 20만배럴 / 일의 規模에 지나지 않는다. 바스라 製油所 7만배럴 / 일이 重大한 損害를 입고 있으나 구울라 製油所 (8만배럴 / 일)가 현재 稼動中에 있으므로 國內供給에 큰 制約은 생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石油輸出能力에 影響을 주는 港灣施設이나 파이프·라인의 被害는 이라크側의 損害가 비교적 큰 模樣이다.

例로서 이라크의 石油 積出港 화오, 코 올·알·아 마야, 미나·알·바클의 3個所의 터미널이 다 같이 이란군의 砲擊으로 거의 완전히 破壞되어 있다.

〈표-3〉 石油關聯施設의 被害狀況

	이 란 側	이 랍 側
積出港·施設	가아구 島 가벼운 損傷, 稼動中 반달·마하살 損傷, 閉鎖中 아바단 가벼운 損傷, 閉鎖中 호람샤할 가벼운 損傷, 閉鎖中	화오 損傷, 閉鎖中 코 올·알·마아야 損傷, 閉鎖中 미나·알·바클 損傷, 閉鎖中
製油所 등	아바단 (60만 배럴) 중대한 損傷, 閉鎖中 베헤란 (22만) 가벼운 損傷 다부리이즈 (8만) 가벼운 損傷 게루만샤 (1.5만) 가벼운 損傷	바스라 (생산능력, 일당 7만배럴) 중대한 損傷, 閉鎖中 기리·구우구 (3만) 損傷 구울라 (8만) 가벼운 損傷, 稼動中 코 올·아루즈·베이라석화기지 損傷 아인사아라·가스기지 損傷
파이프·라인	아와즈-데헤란 稼動中	기리·구우구 (이라크)-도루디오우루 (터어키), (40~60만배럴) 損傷, 閉鎖中 기리구우구-바니·아스 (시리아), (40~60만에의 능력증가능) 損傷, 閉鎖中 기리구우구-드리포니 (레바논) (40만) 가벼운 損傷, 稼動中

資料: 「아랍·오일·앤·가스」 (10월 1일호)에다 그후의 情報을 가하여 作成.

또한 이락에서 地中海측 파이프·라인에는 기리구 우구드리포리 (40만 배럴/일)가稼動하고 있는 외는 터어키, 시리아 경유 모두 損傷을 받아 閉鎖中이다.

이와같은 被害狀況으로 보아 금년 1~3月の 이락의 輸出 能力은 戰爭前의 330만배럴/일과 비교하여 60~70만배럴/일로 20% 정도 水準에 머물러 展望이다. 일방, 이란의 石油輸出은 被害가 가벼운 가아구島와 激戰地로부터 떨어져 있는 시이리이島 (2만 배럴/일 정도)에서 輸出을 再開하고 있다. 戰爭前의 輸出量 70만배럴/일의 水準으로 복구되기에 是는 當분간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락보다는 短期間에 回復된다고 보여진다.

戰爭이 이대로 終息된다면 兩國을 한 戰爭前의 石油輸出水準 400만배럴/일 (이란 70만배럴/일, 이라크 330만배럴/일)은 금년의 1~3월 100만배럴/일, 4~6월 140만 배럴/일, 7~9월 180만배럴/일, 그리고 10~12월에는 220만배럴/일로 回復될 展望이다. 1980年末에는 이란은 戰爭前의 輸出力을 回復하겠지만 이락은 被害狀況으로보아 150만배럴/일 정도에 그칠 公算이 크다.

### (3) OPEC諸國의 增産可能性

이란·이락戰爭으로 인한 石油輸出 減少分은 다른 OPEC 諸國이 增産하므로써 어느정도 補填될 수 있을 것인가.

1980年 10月 케르사灣岸 아랍 産油國은 會議를 열고 이란·이락 戰爭에 의한 減産分을 補充한다는 增産의 意向을 表示하였다. 增産의 움직임이 있는

것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首長國聯邦, (首長國聯邦) 쿠웨이트, 카타루의 4個國이다.

우선 사우디·아라비아의 增産可能性은 端期間이라면 현재의 950만 배럴/일에서 100만 배럴/일이라 말하고 있음으로 暫定的으로 90만배럴/일 增産하는 것은 가능하다. 一時的으로 이 水準까지 끌어 올렸지만 그후 增産幅을 50만배럴/일로 減少하고 1,000만배럴/일로 生産을 낮추고 있다.

아랍首長國聯邦의 경우는 油田의 壓力이 해마다 低下됨으로써 80年 8월에 減産하여 얼마되지 않았다. 減産에서 增産으로 轉換 하는데는 技術的으로 도 어렵고 현재의 産油量 162만배럴/일에 10~20만 배럴/일 追加하는 것이 그 限度이다. 이 때문에 아랍首長國聯邦은 1980年の 제 4/4 분기에 5만배럴/일의 增産을 결정한데 그치고 있다.

쿠웨이트는 1980년 제2/4분기, 제3/4분기의 125~130만배럴/일의 平均 産油量에서 제4/4 분기에는 175만배럴/일과 45만배럴/일정도의 增産을 할 意向이다. 그리고 카타루는 2만배럴/일을 追加할 정도로서 量的으로 期待할 수 없다.

이상을 合算하여 보면 灣岸諸國의 增産可能性으로서 140~160만배럴/일일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가 增産幅을 減少함으로써 1981年 第1/4 분기에는 100만배럴/일의 追加 産油量으로 끝날 展望이다.

## 3-2 1981年の 國際油情勢

自由世界の 石油手給은 1980年 第3/4 분기에는

(표-4) 1981年 自由世界 石油需給展望

(단위 : 만 배럴/일)

年 月	1980. 10~12	1981. 1~3	1981. 4~6	1981. 7~9	1981. 10~12	
需 要	5100	5200	4900	4800	5100	
供 給	OPEC	2550	2600	2540	2580	2620
	其 他	2300	2300	2300	2300	2300
	在庫減少	250	300	60	△ 680	180
給 計	5100	5200	4900	4800	5100	
在 庫	54.7억배럴	52억배럴	51.5억배럴	52.2억배럴	50.6억배럴	
備 考	공급의「기타」의 내역 ● 비OPEC 1900 ● NGL 생산 300 ● 공산권부터 수입 100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 수장국연방, 카타루, 4개국의 추가 100만배럴/일이 4월이후 중지된다고 상정			

주) 在庫 : 1980년 제3/4분기의 在庫水準은 57억배럴-91W

200만배럴/일의 供給過剩으로 推定되어 石油水準 100일분을 넘고있었다. 그런데 제 4/4분기부터 이란·이라크 戰爭의 影響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供給水準이 내려가는 反面 겨울의 需要期를 맞아 需給關係는 逆轉 되었다. 금년 1~3월의 需給事情도 이와 같이 되며 그동안 自由世界 全体에서는 300만배럴/일의 在庫를 할수없이 쓰게 될 것이다.

그 결과, 備蓄水準은 80년 제3/4분기의 57억배럴에서 5억배럴(약10일분) 減少하여 81年 3月末에는 52억배럴로 低下될 展望이다.

그후 이란·이라크의 原油輸出이 徐徐히 回復하여 一時的으로 石油需給은 均衡을 이루지만 1981年末의 需給期에는 또 다시 在庫減少라는 事態를 招來할 憂慮가 있다.

이와같이 매크로(macro)적인 石油需給은 在庫水準을 調整함으로써 均衡狀態를 유지시킬 수 있다. 단지 문제는 減少된 在庫를 어느 시점에서 增加시키는냐 이다. 이런 점에서 石油消費國간이 어느 정도 共同步調를 취할 수 있는냐가 重要な 課題로서 浮上되는 것이다. 이 의미에서 금년에도 여전히 波亂 많은 石油情勢下에 놓이게 될 것이다. (표-4 參照)

## 4. 原油價格과 OPEC長期

### 戰略의 新展開

#### 4-1. 原油價格의 動向

自由世界的의 石油需給이란 매크로적 觀點에서 볼 때 금년 1年을 통한 需給逼迫은 價格上昇을 招來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想起하지 않으면 안될 것은 제 1차, 제 2차 石油危機時 매크로적으로 「石油不足」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不拘하고 原油價格의 大幅的인 上昇을 惹起시켰다는 事實이다. 즉 70年代의 石油價格의 大幅的인 上昇은 이슬람·내셔널리즘이 檣頭가 事業參加·國有化를 促進하고 매이저의 石油支配力이 低下된다는 石油供給構造의 變化속에서 禁輸등에 의한 供給不安 및 將來 石油量을 豫見한 假需要의 발생이 주요원인이었다.

1979年 9월에 勃發한 이란·이라크 戰爭은 그때까지 이란·이라크에 原油를 依存하고 있던 나라가 다른 產油國에 供給源을 구한다는 狀況을 낳게 하였다. 즉, 이란·이라크 戰爭은 石油流通經路의 變化를 가져왔고 價格上昇에의 새로운 摩擦을 발생케 하였

다. 石油流通經路의 變化는 나라 또는 企業이라는 마이크로·레벨까지의 石油需給逼迫을 招來하였고 供給不安感은 價格上昇 壓力이 되었다.

이란·이라크의 原油依存도가 높은 나라는 선진국에서는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이 있고 제 3세계에서는 브라질, 인도 등을 들 수 있다. (표-5 參照)

이런 나라들은 새로운 石油供給先을 긴급히 구하지 않으면 안될 상황에 놓여 졌다. 이 결과, 1979

#### (표-5) 이란·이라크 原油에의 依存度

(단위: 1000배럴/일)

국명	이란	이라크	국명	이란	이라크
西유럽	120	1115	東·유럽	140	420
오스트리아	-	40	불가리아	20	30
프랑스	-	560	체코슬로바키아	10	40
그리스	-	50	동·독일	20	30
이탈리아	-	225	헝가리	-	30
포르투갈	-	70	폴란드	20	40
스페인	100	140	루마니아	60	30
스웨덴	20	30	소련	-	120
아시아·중동	210	690	유고슬라비아	10	100
인도	120	120	기타(현물시장포함)	50	275
일본	-	400	석유회사등	150	360
한국	30	-	輸出	700	3300
터키	60	100	國內精製	1000	200
시리아	-	70	合計	1700	3500
南·아메리카	30	440			
브라질	30	440			

年 10月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등 灣岸產油國의 增産分은 프래미엄(割増金)이 붙고 現·物價格을 높이는 事態를 빚어 내었다.

이와같은 原油價格의 매카니즘에서 判斷할때 금년의 原油價格은 3月頃까지 이란·이라크 戰爭의 余波로 上昇基調에 있다. 그러나 石油消費國으로서의 本格的인 試鍊은 가을시초 이후의 需要期에 나타날 것이다. 이 時期에는 石油備蓄을 主要先進國이 彈力的으로 活用하지 않은한, 石油市場에 波亂이 일어날 것은 피할 수 없는 情勢이다.

#### 4-2. 價格統一 OPEC長期戰略의 行方

OPEC長期戰略에 기인한 새로운 價格 決定方式

(15p에 계속)

施設物面에서는 英國의 影響을 받은 홍콩,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은 配電線路 및 引込線까지 地中線化하였으며, 屋內의 配線도 安全度를 極大化하였고, 計量器는 檢針이 容易하게 設置되어 있었다.

制度的인 면에서도 比較的 未洽한 一面을 엿볼 수 있는 泰國은 施設面에서도 落後된 모습을 느낄 수 있었는데, 이는 制度的인 配慮와 補完이 必要함을 證明하는 셈이다.

ASEAN 諸國을 電氣關聯制度를 概括적으로 살펴보면 우리 나라의 電氣工事業界는 적어도 東南亞 諸國보다는 多少優位에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나라보다 뒤떨어진 國家라 할지라도 그들과의 相互理解와 經濟協力体制의 構築은 國際化 時代로 발돋움하는 現時點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生覺된다.

이는 民間外交에 根幹을 두고, 政治的 經濟的 文化的 側面에서 國家의 積極的인 支援과 配慮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 巡訪을 통하여 싱가포르電氣工事協會로부터 1981년 9月中 싱가포르에서 開催되는 第

(42p에서 계속)

은 1979年 11月末로 豫定되어 있던 OPEC 創立 20周年의 首腦會議가 연기되어 大幅 늦어질 展望이다. 또 油種間 隔差의 문제도 사우디·아라비아가 1979年 9月 下旬에 公式販賣價格을 2\$/배럴 引上한 30\$/배럴로서 產油國의 갖가지의 價格體系에 終止符를 찍을 예정이었다.

OPEC 長期戰略이란 原油의 實質價格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플레이調整, 通貨調整, 先進 10國의 國民總生産(GNP)를 根底로 하여 原油價格을 年 4回 調整한다는 提議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方式은 油種別의 價格體系에 齊合性이 缺如되어 있거나 石油市場이 不安定할 경우에는 導入하기 어렵다. 결국 OPEC 長期戰略을 實施함에는 價格統一問題를 해결하여 들것이 前提가 되는 것이다.

從來부터 長期戰略案은 穩健派와 強硬派間에 對立하고 있고 이란·이라크 戰爭은 이와같은 對立에 拍車를 가했음에 틀림없다.

사실, 戰爭은 이란·이라크 사이 뿐만 아니라 美軍이 AWACS (早期警戒管制機)를 사우디·아라비아에 配置함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와 斷交하는 등

2回 「아세안電氣工事協會聯合會 總會 및 電氣機資材展示會」에 出品 및 參加要請을 받아 海外進出을 模索하는 우리로서는 絶好의 機會라고 生覺하며, 電氣產業部門의 關係者 여러분과 政府當局의 積極的인 支援이 期待된다.

한편 우리나라 火災發生의 가장 큰 要因의 하나가 電氣로 因한 事故로 指適되고 있음은 電氣關係에 從事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써 매우 가슴아픈 일이며, 國民 여러분에게 부끄러움을 禁할 筈 없다.

이는 施工業者에게도 問題點이 있다 하겠으나 現行 우리나라의 電氣工作物 事後管理 制度에 더 큰 問題點이 適되고 있음을 指適하지 않을 수 없다. 此際에 우리도 外國처럼 施工業者가, 本人이 施工한 工作物에 對하여 그 施設物의 維持, 補修를 長期的으로 契約하여 繼續 工作物의 補修 및 安全管理를 徹底히 함으로써 電氣로 인한 火災 및 各種事故로부터 國家 및 國民의 貴重한 財産을 保護할 수 있는 制度의 改善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政治對立이 깊어가고 있고 OPEC의 結束에 暗影을 던지고 있다. OPEC의 分裂은 어떻게든 피할 수 있는 情勢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사우디·아라비아-이라크를 軸으로 한 OPEC에 이라크의 威信墜落이 준 影響은 급후 사우디·아라비아의 指導力이 어디까지 回復할 것인지 微妙한 段階를 맞이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에는 增產余力이 적다는 점 또 국내에 強硬派가 擡頭하고 있다는 점에서 OPEC 내부의 穩健派의 勢力이 약해져 가고 있음은 否定할 수 없다. 1981年의 原油價格決定方式은 各國의 갖가지의 價格引上을 OPEC 總會가 追認하는 형식으로 公式販賣價格을 設定한다고 하는 不規則한 價格引上攻勢를 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적어도 油種間 價格引上攻勢를 가하는 것이 될 것이다. 적어도 油種間 隔差의 是正, 新價格體系에의 移行은 首腦會場에서 重要議題에 上程되는 경우가 있다 하여도 最終의 合議에 到達하려면 1981年末이나 1982년 이후로 延期될 公算이 크다.